

보성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률 호남권 1위, 83% 달성

‘이재명 대통령 민생공약’ 실현 전국 선도... 전남 평균보다 12% 이상 앞서

보성군(군수 김철우)은 정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서 지급률 83%를 기록하며, 전국 평균(72.0%) 및 전라남도 평균(70.4%)을 크게 웃도는 전국 최고 수준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7월 25일(24시 기준) 전국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통계에 따르면, 전체 3,642만여 명 중 약 72%(3,643만 명)가 신청을 완료했으며, 지급액은 총 6조 5,703억 원에 달한다.

보성군은 소비쿠폰 신청이 시작된 7월 21일부터 불과 7일 만인 2025년 7월 27일(24시 기준), 전체 지급 대상자 36,531명 중 30,178명에게 약 68억 원을 지급해 83%의 지급률을 기록했으며, 호남권(광주·전남·전북)에서 1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특히, 전라남도 전체 지급률은 70.4%인 상황에서, 보성군은 유일하게 80%를 넘는 지급률을 기록해 행정 대응력과 군



민 참여 의식 모두에서 전국적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직접 발표한 대표 민생 공약 중 하나로,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자영업·소상공인 지원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보성군이 전국 최고 수준의 지급률을

기록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전국적인 지류형 상품권 수요 급증을 사전에 예측하고 사업 초기부터 충분한 물량을 선제적으로 확보한 준비된 행정력이 있다.

또한, 농촌 고령 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 상품권을 1만 원권의 소액 단위로 구성해 군민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과 실효성을 높였다.

아울러, 사업 초기에 전담 TF를 구성하고, ▲읍면 중심의 현장 접수 창구 설치, ▲이장단과 연계한 마을 단위 안내, ▲고령층 대상 직접 방문 및 전화 안내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군민 맞춤형 행정을 펼쳐왔다.

군은 7월 28일부터 미수령자 대상 방문 지급과 발급 독려 활동을 확대해 전 군민 100% 수령률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류형 상품권 사용 기한은 11월 30일 권장하며, 군 누리집과 SNS를 통해 가맹점 및 사용자 정보도 수시 안내하고 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전국적인 수요 증가 속에서도 군민 한 분도 놓치지 않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한 결과가 전국 지급률 최상위 지표로 나타났다.”라며,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군민의 삶을 따뜻하게, 지역 경제를 단단하게 만드는 실질적 수단이 되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보성/김운기 기자



강진 하맥축제, 사전예약 테이블 28일 오픈

병맥주서 생맥주로 전환, 좌석 1,000석 확대 등 업그레이드

올여름 강진에서 맥주와 음악이 어우러지는 ‘강진 하맥축제’가 한층 향상된 콘텐츠와 운영으로 다시 돌아온다.

제3회 강진하맥축제는 오는 8월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강진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되며, 강진군은 관람객의 편의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축제 전반을 대폭 개설했다.

먼저, 지난해 많은 관람객이 몰리면서 발생했던 사전예약석 좌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00석의 좌석을 추가로 확보했다. 보다 여유로운 관람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긴 맥주 대기줄 해소와 시원한 맥주 제공을 위해 냉장 컨테이너와 생맥주 디스펜서를 대폭 증설했으며, 특히 지난해 병맥주로 제공됐던 ‘하맥촌맥주’는 올해부터 병영양조장에서 생산한 생맥주로 전면 교체돼 축제 현장에서 더욱 신선한 맛을 선사할 예정이다.

공연 라인업도 눈길을 끈다. 축제

첫날인 8월 28일에는 대한민국 대표 록밴드 체리필터와 공연의 신 이승환이 무대에 오르며, 29일에는 래퍼 신스와 힙합 듀오 다이나믹듀오, 마지막 날인 30일에는 워터밤 여신 가수 권은비가 강렬한 퍼포먼스로 무대에 오른다. 유명 DJ들이 함께하는 EDM 파티도 마련돼 무더운 여름밤을 뜨겁게 달굴 예정이다.

관람 방식은 일반석과 사전예약존으로 나뉘며, 일반석은 1만 원에 맥주 무제한 제공이 포함되고, 사전예약존은 공연 무대와 가까운 전용 좌석에서 맥주 무제한 혜택을 즐길 수 있는 특별 존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전국 각지에서 보내준 하맥축제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올해도 전성 매진을 기대하고 하맥촌맥주와 강진 누구나 반값여름 등 강진의 대표 자원을 널리 알리고 지역 상권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강진/손경설 기자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지난 7월 25일(금), 군남면사무소에서 찾아가는 일자리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지역 주민의 취업을 돕기 위한 실질적인 상담과 지원에 나섰다.

‘찾아가는 일자리 지원센터’는 영광군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으로 전남고용노동연구원과 영광군 일자리지원센터가 협업하여, 일자리를 찾는 주민과 인력난을 겪는 기업 간의 실질적인 연결고리를 만들고자 기획했다. 현

영광군, 찾아가는 일자리지원센터 “현장에 답이 있다”

군남면 찾아가는 일자리 지원센터 구직자 맞춤형 지원에 큰 호응

장에서 직접 구직자의 이력서를 작성부터 면접 연계까지 지원하는 원스톱 상담 서비스에 많은 군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이어졌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구직자는 “인터넷으로 일자리를 찾는 게 서툴고 이력서를 쓰기 막막했는데, 이곳에서 1:1 컨설팅

을 통해 방향을 잡을 수 있었다.”며 “사는 곳이 먼 지역이어서 영광읍까지 이동에 불편함이 있었는데, 집 가까이 ‘찾아가는 일자리 지원센터’가 있어 구직 상담에 간편하고 편리했다.”라고 말했다.

영광군 관계자는 “단순한 취업 정보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구직자

의 목소리를 듣고, 실제로 연결해주는 살아있는 일자리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다.”며, “군민 여러분의 거주지와 가까운 읍·면사무소를 통한 ‘찾아가는 일자리센터’를 많이 이용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영광군에서는 오는 8월에도 읍·면사무소를 순회하며 찾아가는 일자리 지원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관심 있는 구직자 및 기업 관계자는 영광군 일자리 지원센터(☎061-350-5517)로 문의하면 된다.

영광/이현식 기자

진도군, 8월부터 ‘복합민원 사전 예약제’ 전격 시행

인허가 민원, 원스톱 민원 처리를 통해 민원인 불편 해소

진도군은 군민들의 복합민원 처리와 관련한 편의와 민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8월부터 ‘복합민원 사전 예약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복합민원을 처리하려면 민원인이 여러 부서를 직접 방문해야 했으며, 담당자가 부재일 경우 협의가 지연되는 등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진도군은 복합민원 사전 예약제를 도입했다.

복합민원 사전 예약제는 여러 부서의 협의가 필요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복합민원에 대해 민원인이 사전상담을 예약한 후 1회 방문을 통해 민원을 처리하는 제도로서, 민원인의 불편요한 제방문을 최소화할 수 있다.

대상 민원은 건축, 개발행위, 농지, 환경, 위생 인허가 민원이며, 사전심사 청구

제와 연계해 추진한다.

사전상담 예약은 군민들이 직접 진도군청 또는 읍면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061-540-3604) 예약, 찾아가는 인허가 상담 서비스, 군청 누리집 등을 통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사전 검토와 협의를 거쳐 상담 일정을 정하고, 민원인에게 처리 절차, 소요 기간, 구비서류 등에 대해 안내한다.

진도군 민원봉사과 관계자는 “이 제도를 통해 민원 상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정확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를 통해 군민의 만족도를 높이며,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해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는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진도/오재명 기자

구례군, 읍·면 경로당 대상 결핵 전수검진 실시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조기 진단·예방 중심의 결핵검진 실시

전남 구례군은 지난 7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토지면 관내 마을 경로당 11개소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184명을 대상으로 결핵 전수검진을 실시했다.

이번 검진은 흉부 X선 촬영을 통해 진행됐으며, 이상 소견이 발견되거나 증상이 나타난 26명은 추가로 가래 검사를 시행했다. 검사 결과에 따라 정밀검사 및 사례관리를 지속할 예정이다.

결핵은 기침이나 대화를 통해 공기로 전파되는 호흡기 감염병으로, 면역력이 낮은 고령층은 감염 위험이 크다. 자각 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아 조기 진단과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실제로 전남 지역의 결핵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45.8명, 사망률은 5명으로, 이는 전국 평균 대비 각각 1.4배, 1.9배에

달한다. 이에 따라 구례군은 경로당을 중심으로 결핵 조기 발견과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검진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구례군보건의료원은 2024년 마산면을 시작으로,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나머지 7개 읍면을 대상으로 「경로당 전수검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검진과 함께 결핵 증상 안내, 기침 예절, 손 씻기 등 예방수칙 교육도 병행돼 어르신들의 결핵 예방 인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례군보건의료원 관계자는 “결핵은 조기에 발견해 꾸준히 치료하면 완치가 가능한 질병”이라며, “2주 이상 기침이 지속되면 보건의료원 결핵관리실이나 가까운 병·의원을 찾아 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구례/한정호 기자

나주시, 2025년도 하반기 업무 추진 전략 수립 박차

주요업무계획 보고회... 시정 핵심과제 점검 및 현안 공유

전라남도 나주시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통해 민선 8기 역점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시정 핵심과제에 대한 실행 전략을 모색했다.

28일 나주시에 따르면 이번 보고회는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국 단위로 진행했으며 민생 밀착형 정책부터 지역 주요 현안까지 폭넓은 논의가 이뤄졌다.

생활 현안으로는 주차난 해소,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통한 지역경제 회복 방안 등이 다뤄졌고 남평읍 복합청사 신축, 빛가람 혁신도시 복합시설 운영, 기후에너지부 유치 등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부

별 보고와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하반기에는 시정의 추진 동력을 재정비하고 시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드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철저한 과제 검토와 강한 실행력을 바탕으로 적극 행정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나주시는 오는 하반기 ‘2025 나주 영산강축제’, ‘MBN 전국 마라톤 대회’, ‘국제농업박람회’ 등 다양한 행사를 앞두고 있어 지역경제 회복과 시민 참여 확대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나주/이명열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이 작품은 국민 김라온님이 제안한 공익광고입니다. - 2024 정부광고 크리에이티브 페스티벌 수상작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서울특별시교육청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

독서로 찾는 강력하고 건강한 도파민

독서는 우리의 문해력과 사고력을 키워주는 큰 자산입니다. 책을 통해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진정한 '나'를 만듭니다. 소셜 미디어와 스마트폰에서 얻은 일시적인 자극 대신, 독서라는 건강하고 긍정적인 자극을 선택해 보세요.

지금 읽고 있는 것보다...
 - 책감치럼
 - 타성에 젖지 않을 것.
 - 미련을 남기지 않는 것.
 - 늘그렇듯, 늘 주의를 기울일 것.
 - 헛살 같은 일과도 같은 것.
 - 포기하지 않고 잘 버티고 있다는 것.
 - 내가 나를 알아봐 줄 것.
 - 코자 볼 수 있는 것이니까
 - 나의 가치를 내가 찾을 것.
 - 특별함을 당신이 생각하는 것 보다 누구보다
 - 예쁘다고 다 끌리는 게 아니고
 - 소중함을
 - 좋은 생각으로 나를 채울 것.
 - 마음먹기에 그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이었는지 느껴진다.
 - 우리는 몇 장짜리 책인가
 - 자칫 무의미해 보이는 꿈같은 것에서
 - 기어스레 생각
 - 정말 멋진 나를 있는 건데
 - 평범함의
 - 더 크게 웃을 것
 - 포근한 이불
 - 정말이다. 공전으로 맞물려
 - 일상을
 - 우어도 보는 것.
 - 마음이 편해진다
 - 누가 뭐라고 해도 말야할 것
 - 몇 장이나 될까,
 - 책감치럼
 - 잠시
 - 쉬우고
 - 현재의 미래와 걸러낼 수 없는 것이긴
 - 풍만적인 훨씬 강하다는 것
 - 평범한 것은
 - 고유의 색을 가능 하다.
 -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 미래의 현재가
 - 극단인 사람,
 - 내가 정말 팬잖은 사람이 되면
 - 기회는 위기 속에서 찾아온다는 건
 - 다 잘될 테니까
 - 그 자체만으로도
 - 좋은 거라면
 - 언제나 우연